

+ 알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가족들과 함께 기쁜 한 주일을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생활 가운데 발현하심과
제자들을 당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서
우리 일상의 평범한 일들과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분노를 사랑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삶을 생기 있게 바꾸어 주시며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순간 순간 보여줍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러면서 오늘 저에게 묻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는데
다시 “토마스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다시 물을 때
“예, 주님, 그런데.....” 대답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토마스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는 했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니 사랑은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단순히
가슴 깊이 묻어 두고 간직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도
주님께 대한 전적인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까지 사랑하지 못한 나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변함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돌보신 주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나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목숨 바쳐 아끼던 주님의 양떼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으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에
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축복의 한 주일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토마스